

## 닭고기 품질인증제 적극 추진

본회에서는 품질차별화 및 이를 소비자의 제품 구입시 선택기준으로 활용케 하므로써 고품질 닭고기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닭고기 품질인증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본회는 지난 1월1일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00년도부터 닭고기 품질인증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품질인증기관의 자격이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단체로 규정돼 있으나 본 계육협회는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생산자단체로의 분류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회는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농수

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 또는 수출을 위해 계열주체들이 모여 결성한 협회”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닭고기 운반차량의 소독 및 항문절개기 시설의 의무화 등 안전축산물 생산과 질병전파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 품질인증규정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닭 뉴캐슬병 예방접종 실시명령 개정

농림부는 지난 3월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돼지 콜레라 및 닭 뉴캐슬병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농림부 고시 제1999-8호로 개정 고시하였다.

뉴캐슬병의 경우 전국의 부화장에서 부화되는 병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부화장의 소유자이며, 예방접종은 부화장에서 각각 당해 예방약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실시토록 되어 있다. 또한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후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수송상자에 표시하면 예방접종 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2차 접종과 수입 병아리에 대한 예방접종은 당해 병아리를 입식한 소유자 등이 실시하게 되어 있다.

만약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게 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예방 실시 기간은 고시 시행일(99년 3월 15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이다.

## 99년 농업용 면세유 공급 4,780억원 농가 혜택

농림부는 올해 농업용 면세유를 지난해 보다 5% 늘어난 2천여kl를 공급키로 했다.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86년 3월1일부터 농업용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등을 전액 면제 공급하고 있는데 99년도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98년 공급량 1천9백59kl보다 5% 늘어난 2천49kl 공급키로 하였다.

또한 금년도 한도배정분을 공급하고 부족할 경우 관계부처에 추가 공급 요청하여 면세유 공급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99면세유 공급계획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액은 98

년도 4천3백99억원 보다 8.7% 늘어난 4천7백80억원이며 이를 농가당으로 환산하면 33만8천원의 세제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면세유류를 농업용에만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는 가정용보일러, 차량용 등 목적의 사용농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면세유량을 증량 공급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는데 면세유 부당사용 농가의 경우 과세 조치하며, 익년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해당농협, 읍면 게시판에 명단을 게시토록할 예정이다.

## 미국 육계 생산, 10년후 43%정도 증가 전망

미농무부(USDA)는 지난 2월 22~23일에 개최됐었던 「농업 관측 회의」에서 2008년까지의 농업 전반의 수급에 관계하는 장기 전망을 발표했는데 육계의 경우 생산·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였다.

육계 생산량은 2008년에 98년과 비교하여 42.8%증가한 1천8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국내 소비가 순조롭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소비량은, 98년의 38.7kg에서 2008년에는 32.3%증가한 51.2kg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육계를 포함한 가금육의 생산은 다른 식육에 비해 증가율이 높는데 앞으로 10년간도 이러한 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모의 경제, 기술혁신에 의해 생산비의 증가가 물가상승율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 다른 식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한 업계의 노력으로 소비자들에게 지방이 적으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수출에 있어서는 경제부진으로 인한 아시아로의 수출이 둔화될 것이며 최대 시장인 러시아의 상황으로 인해 2000년까지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그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의 격화로 인해 증가율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 “규칙적인 소독으로 마이코톡신 문제를 방지하자.”

마이코톡신이란 곰팡이에 있어서 특정한 종류가 배출하는 독성으로 육계의 성장을 저해하고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독소에 의한 손실을 막는 길은 사료나 급이기, 급수기 및 깔짚 등 환경을 청결하고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 뿐이며 이것이 독소로 인한 문제의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육계농장의 소독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수많은 병원균의 조직은 대부분 닦아내고, 씻어낼 수 있으며 소독하여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육계에 문제가 되는 병원균 중에는 최근에 더욱 세밀히 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써 곰팡이를 들 수 있다. 만약 음식이나 사료가 주위에 있고 또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면 곰팡이는 바로 자랄 것이다. 또한 우리가 메주를 띄워 간장을 담가 먹을 때 이는 것과 같이 모든 곰팡이가 다 유해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곰팡이의 성장에 필요한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육계 사육에서도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 또는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곰팡이는 캔디다이스와 아스퍼질러스와 같은 전염병을 발생시키므로 잠재적인 독성을 갖고 있는 것이며 심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다.

공장에서 제조된 사료가 농장에서 소비될 때까지 오염과 곰팡이의 성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미국의 한 대학에 의해 진행된 시험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두개의 똑같은 육계 계사에 옆으로 구분된 농장을 선택했다. 사료내의 아프라톡신과 오크라톡신의 양은 10억분의 40으로 미리 정해졌고 이 수준으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정도이다. 각 농장에 하나의 계사는 대조구로 두었다. 실험계사의 사료통과 자

동 급이기, 급수기는 철슬로 깨끗이 물을 제거하고 표면은 5% 크로록신 용액으로 소독되었다. 2만7천마리의 육계를 기를 수 있는 계사의 급이기에 사료통이 피고 덩어리진 9백kg의 사료가 제거되었다. 전 계사는 깔짚의 효과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기본 깔짚 위에 2.5cm의 대패밥을 위에 더 깔았다. 계사는 농장에 따라 1천수부터 2천5백수로 울타리로 칸을 나누었다.

육성기간 마지막에 각 칸마다 5마리씩 도계하여 혈청의 카로티노이드를 측정했다. 도계된 육계의 지육은 #1을 최고로 #5까지 등급을 지었다. 아래의 표는 이 시험의 결과이다.

	일반계사	소독계사
체중(g)	1,529	1,612
혈청내 색소(ppm)	21.7	26.1
도체등급(%)	(100%)	(100%)
#1	28.2	59.6
2	59.5	37.9
3	11.2	2.5
4	0.25	0.0
5	0.25	0.0
평균등급무게	1.84	1.43

이 표는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된 닭은 마리당 83g의 체중증가를 보여주

고 있다. 혈청내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착색효과는 20%가 증진되었고 도체등급은 평균 1.84에서 1.43으로 개선되었다.

결과적으로 깨끗하고 소독된 환경은 체중, 착색, 도체등급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인에 유리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험은 덩어리지고 곰팡이 핀 사료를 나르고, 저장하는 기구에 의해 육계 계군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사료통, 급이기, 급수기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청소하고, 소독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낡아서 구멍이 새는 사료통은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물은 다리를 높여 놓은 나사 구멍을 막은 뚜껑부분에서 자주 세는 데 사료통에서 흘러나온 사료, 물통에서 새는 물 등과 같은 것이 곰팡이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므로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주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독소에 의한 질병과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사료통과 물통의 교체 및 수리, 소독은 간단한 일처럼 들린다. 물론 쉽고 간단한 일이다.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마이코톡신 문제를 방지하여 육계 사육에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인 것이다.

## 세계 가금육 생산, 매년 5%이상 증가 예상

80년대 중반부터 연간 가금육 생산은 5.6%씩 증가하여 이대로 계속된다면 93년~95년 현재 생산 5천1백만 톤에서 2005년에는 8천9백만 톤(연평균 증가율 5.1%)에 이를 것이라고 FAO가 예측했다. 1인당 소비량이 9.1kg에서 13.7kg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가금육은 특히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빠르게 증산되고 있으며, 이미 증가한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느린 증가를 보일 것이다.

생산원가가 낮고 문화와 종교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가금육의 장점이다. 세계 가금육 무역량은 매년 11%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2005년에는 7백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홍콩, 러시아, 싱가포르가 주요 수입국이 될 것이다.

수출은 미국이 시장의 50%를 점할 것이고, 브라질, 중국, 태국이 생산을 크게 늘려갈 것이다. 유럽국들은 자급을 유지할 것이다.(PD)

# HACCP 시행으로 살모넬라 오염도 낮춰

- USDA, HACCP 시행 첫해 살모넬라 시험결과 발표 -

미농무부는 지난 98년 한해 동안 시행했던 HACCP 제도에 대한 평가로 살모넬라 오염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미농무부 내에서 식육·가금육·난제품의 안전성, 위생 및 정확한 라벨링을 관장하는 기관인 FSIS(식품안전검사처)는 96년 7월 25일, 획기적인 규정인 병원체감소/HACCP제도를 발표하였는데 이 규정은 97년 1월 27일부터 실행되었으며, 5백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연방작업장은 98년 1월 26일부터 살모넬라 검사요건도 적용받게 되었다.

당국은 연방작업장이 병원체감소/HACCP규정에 포함되는 제품에 대한 살모넬라 성취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통계학에 기초하여 설정된 샘플수에서 양성허용 샘플

수의 최대치를 설정하였다. 살모넬라 성취기준은 9 CFR 310.25(b)와 381.94(b)에 제시되어 있다. 성취기준은 작업장들이 전국적인 살모넬라 기초조사 결과에 비추어 80%의 합격률을 나타내도록 계산되었다.

HACCP 실시 첫해동안, 살모넬라 샘플은 1백99개의 대규모 연방작업장에서 수거되었다.

비록 도출된 결과들이 모든 자국산 식육·가금육의 무작위 샘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시적인 성격을 띠지만, 각 제품에 있어서 대규모 작업장에서의 살모넬라 오염도는 HACCP 실시 이전에 실시한 기초조사 당시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

98년 1월 26일부터 99년 1월 25일 까지, 당국은 1백24개의 대규모 육계 작업장에서 5천6백97개의 살모넬라 샘플을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HACCP 실시이전 기초조사 결과 20%였던 오염도가 5천6백97개의 샘플에서는 10.9%로 나타났다.

완전한 샘플세트를 가지는 76개의 육계작업장에서 작업장별 살모넬라 오염도는 0%에서 47.1%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이 76개의 작업장중 69개(91%) 작업장이 육계의 살모넬라 성취기준을 만족시켰다. 이 69개의 작업장중 47개(68%) 작업장은 완전한 샘플세트에서 10% 이내의 살모넬라 오염도를 나타내었으며, 이 중 27개(39%)작업장에서는 완전한 샘플세트에서 4% 이내의 살모넬라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성취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7개의 작업장중 5개 작업장에서는 30% 이하의 살모넬라 오염도를 보였다. 성취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7개 육계도축장에 대해서는 살모넬라 추적검사가 실시되었다.

## 육계 성장률 개선에 효과있는 녹색광

녹색등에 의한 점등이 백색이나 적색보다 성장률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월드폴트리에 실린 이스라엘 헤브루대학의 로젠보임 박사의 연구논문 "육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단색광의 점등효과 연구"에 의하면 사료요구율과 폐사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체중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젠보임 박사는 일반 부화장에서 구입한 1백80수의 육계 수평아리를 점등방법을 달리한 4가지 처리구로 분류하여 각각 3반복 실험하였는데 시험 결과, 녹색등 점등의 경우 3일령에 이미 유의성 있는 증체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 시험기간을 통하여 유지되었다.

청색등으로 점등한 경우 후기에 증체가 관찰되었는데, 20일령 때의 체중이 백색이나 적색등으로 점등 사육된 계군보다 상당히 무거웠다.

시험 결과 청색등으로 점등 사육된 계군의 경우 혈장내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으며, 녹색등으로 점등 사육된 계군에서는 23일령과 35일령의 가슴근육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는데 이러한 녹색과 청색의 점등조건은 병아리의 성장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녹색광은 근육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는 반면, 청색광은 안드로젠의 생성을 증가시켜 근육단백질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실험에 사용된 새로운 종류의 전구는 단일 p-n접합으로 구성된 LED 전구로서 이 전구는 고효율, 긴수명, 내수성 및 각기 다른 파장을 가진

각종 색상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WP)

## 성화식품(주) 본회 정회원으로 가입

지난해 구)풀그린식품을 인수하여 새로 계열화 사업을 시작한 성화식품(주)이 본회 정회원(통합경영분과위원회)으로 가입하였다.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면 회덕리 319-6
- 연락처 : (0417) 569-6000
- 팩 스 : (0417) 567-8328
- 대표자 : 이 승 준
- 사업규모 : 연간 9백만수  
(현재 계약생산 40%, 구매60%)

# 상호 신뢰속에서 계육산업 발전 추구

- 본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윤리강령 제정 -

본회에서는 회원사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 속에서 자발적인 협조로 회원사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협회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목적

1. 닭고기의 생산, 가공, 처리, 유통에 이르기까지 통합경영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우리나라 계육산업발전에 기여한다.
2. 회원사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신의와 적극적인 협조로 회원사의 발전을 추구한다.
3. 값싸고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 실천사항

1. 법령 및 상도의 준수  
관계법령을 어기거나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2. 회비 납부  
회원사는 총회에서 정한 회비(일반회비, 특별회비)를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3. 회의참석  
회원사 대표는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참석치 못할 때는 전권을 위임한 대리인으로 참석케 해야 한다.
4. 각종 자료 협조  
관계당국에서 요구하거나 회원사가 공유하기 위한 각종자료를 협회에서 요구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
5. 불이익 자료 유출 금지  
협회 또는 회원사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자료는 유출해서는 안된다.
6. 홍보사업 협찬  
회원사는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찬해야 한다.
7. 협회수익사업 협조  
회원사는 노계처리, 생산재 및 소비재 알선 등 협회 수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8. 계약자 변경 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사간에 생산, 처리, 가공, 유통 계약자를 일방적으로 유인 변경케 하여 타 회

원사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9. 직원 스카웃 금지  
회원사 상호간에 사전 양해 없이 임·직원을 스카웃 하여 타 회원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10. 판매가격 덤핑 금지  
천재지변 기타 전 회원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덤핑판매로 타 회원사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11. 악성루머 유포금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악성루머를 유포해서는 안되며 회원사에 불이익이 있는 사항은 단시간 내에 해명 또는 수습하는데 서로 협조해야 한다.
12. 합의사항 준수  
계육산업발전이나 협회(회원사) 발전을 위해 만장일치로 합의한 사항은 꼭 준수해야 한다.

### 시행

본 윤리강령은 전 회원사의 찬동을 받아 1999년 3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 파파이스, 내달 북경에 1호점 개설

대한제당은 지난 4월 7일, 중국의 어린이날(6월1일)에 앞서 5월 중 베이징(北京)에 파파이스 1호점을 열고 10월께 2호점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제당은 이에 앞서 중국 호문집단(豪門集團)과 60(대한제당)대 40의 지분율로 합자해 북경파파이스유한공사를 설립했다.

대한제당은 앞으로 5년 안에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등에 25개점을 개설하고 상하이(上海)와 칭따오(青島), 타이런(人連)에도 매장을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파이스는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에 80개의 매장을 갖고있는 KFC와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가게 됐다.

대한제당은 중국 농민들에게 닭을 위탁 사육해 파파이스에 공급하는 한편 텐진채홍사료공장외에 북경및 상해 등에 총 3개의 사료공장을 지어 사료공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파파이스는 국내에서 94년 1호점을 개설한 이래 5년 만에 140개의 매장을 개설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해 KFC보다 매장수에서 앞서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6백18억원이며 올 매출 목표는 7백86억원이다.

우와 ~ 닭고기  
맛있는건 못 참아!

## 육용계 저혈당증 - 급성폐사증후군 (저혈당증) 예방대책 -

다음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육계질병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밝힌 의견이다.

### 1. 저혈당증 (Hypoglycemia-Spiking Mortality Syndrome : HSMS)이란 ?

저혈당증은 전염성 질병으로서 88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보고되었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보고가 되어있고 국내발생은 1998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하였다.

저혈당증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현재로서는 아레나바이러스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외에 복합적 원인으로는 사료내 마이코톡신, 사양관리불량, 약한 병아리, 영양결핍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최근 국내의 육계에서 저혈당증의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99년 2월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를 하었는데 발생은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등에서 부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이병에 의한 국내 육계농장에서의 높은 발생과 피해가 예상된다.

### 2. 주요증상은 ?

저혈당증은 주로 2주령 전후로 발생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출하일령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공통적으로 처음에 관찰할 수 있는 증상은 배를 땅에다 붙이고 다리를 뒤로 쭉 뻗는 증상이며 수시간 혹은 1~2일 있다가 폐사를 하게 된다. 폐사는 전형적인 저혈당증의 경우 발생후 약 3~5일 동안 지속되다가 멈추게 되는데 요즈음에 육계농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폐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다른 증상으로는 병아리들이 모여있고 때때로 머리를 흔들는 등의 신경증상과 함께 호흡기증상들을 관찰할 수 있다. 신경증상은 저혈당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호흡기증상은 2차감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농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저혈당에 의하여 폐사가 되지 않은 병아리들은 증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군 전체에서 증아리현상이 나타나는 데 특히 수능에서 더욱 많이 나타난다. 질병이 경과함에 따라 영양성 장애로 인한 구루병, 경골연골부전증과 함께 2차감염에 의한 대장균증 등이 관찰된다.

순수하게 저혈당증에 감염된 닭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검소견으로는 흉선 및 F양의 위축, 간 및 췌장의 괴사 등이

있지만 이러한 소견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경과할수록 영양결핍과 2차감염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루병, 뇨산침착, 간포막염 등의 다양한 부검소견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쉽게 관찰된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진단은 혈액내의 혈당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진단이다.

### 3. 예방대책

저혈당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방대책이 제시되었지만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여 발생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예방대책은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농장에 적용을 하였을 때 가장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점등프로그램을 응용하는 것이다.

소등시간을 3일령까지는 0시간, 7일령까지 6시간, 14일령까지는 10시간, 21일령까지 8시간, 28일령까지 6시간, 29일령 이후는 2시간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는 표준 방법으로 농장형편에 따라 조정해야 하는데 소등하는 것은 닭들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목적보다는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이용하여 근육과 간 등을 자극하여 혈당량을 올려주기 위함이다.

점등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조적인 방법들을 점등프로그램과 함께 응용할 수 있는데,

첫째, 1주령에서 3주령 사이에는 절대로 사료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사료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도 저혈당증에 의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둘째는 예방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비타민 C, D 등이 포함된 복합비타민을 투여해 주어야 한다.

셋째로 저혈당증은 영양성 질병이 아니라 전염성질병이기 때문에 계사 내 구서, 구충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저혈당증이 발생된 농장에서는 가능한 깔집을 교체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로는 닭이 비어있는 시기에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계사 내 온도를 올려주어 계사 내에 남아있을 바이러스나 세균을 살균하는 방법은 적극 추천을 한다.

마지막으로 물통에 설탕을 첨가하여 주는 방법이다. 설탕을 급수 저장통에 첨가를 하면 파이프가 막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급수기 통에 직접 주거나 다른 용기를 이용하여 주는 것이 좋다. 사료에 섞어 먹이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물에 섞어주는 것이 좋다.

## 계열사육성적 후반기에 높아

본회 회원사의 지난 98년 계열사육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성적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성적의 각 월별, 항목별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육성율은 92.3%, 사육일수는 37.9일, 평균출하

체중은 1.5kg, 사료요구율은 2.0, 생산지수는 184.4로 계열사육 농가의 평균 성적이 집계되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전반기의 성적보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후반기의 성적이 더 높았는데 육성율의 경우 전반기에는 91.4%였으나 후반기에는

93.2%였고, 사육일수는 각각 38.5일과 37.2일, 사료요구율은 2.05와 1.94, 생산지수는 175.3과 193.6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후반기에 성적이 좋았다.

특히, 10월의 성적이 가장 좋았는데 육성율 94.8%, 사육일수 36.7일, 사료요구율 1.91, 생산지수 204.3으로 나타나 9월, 11월과 함께 가을철의 성적이 봄철보다 높으며 연중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1차 이사회 및 3차 통합경영분과회의 개최

- 회장 취임시 주요 실천과제 논의, 회의 후 고문 간담회 가져 -

지난 3월 17일 본회 회의실에서 99년 1차 이사회 및 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시 다시 연임된 김홍국 회장이 취임시 밝혔던 주요 실천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HACCP 시행, 자조금 보조단체 지정, 계열화사업에 있어서 축협중앙회와의 관계, 닭고기 군납제도 개선, 소비촉진 홍보활동 강화 등 올해 본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시기 등을 토의하였다.

기타사항으로 농림부에서 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 실시요령의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사 자체적으로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닭고기의 위생을 한층 더 강화하며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닭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해 닭고기품질인증제도를 시행키로 하였다.

또한 HACCP의 시행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이는 다음 4차회의와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 후에는 올해 새로 추대한 고문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인 미국곡물협회 한국대표, 박근식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장대석 대한

양계협회 신임 회장이 참석하여 회원사 대표와의 상견례 및 업계 현안에 대한 조언과 덕담을 나누었다.

## 사육수수료 정산 방식 검토키로

지난 3월 18일 유성에서 본회 회원사 생산책임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주 안건은 현재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육수수료 정산 방식에 대해 양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대평가와 비교검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모성 질병에 대한 대책 등이다. 상대평가의 경우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전체 사육농가의 평균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성적이 좋은 경우는 보너스를, 그 이하인 경우는 페널티를 물리는 것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전반적인 성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례로 미국의 경우 중계 계군이 일정하고 전체 농가의 성적이 편차가 없이 균일하며 성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국내사정은 각 회원사 별로 사료, 병아리, 출하중량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상호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 회원사별로 98년 한해 동안의 사육비 항목별로 평균성적을 조사하여 검토하며 미국의 경우도 평가방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육용계는 역시 !!

로스, 아바에이커



(주)삼화농원

Tell : (0451)641-1900(대)  
Fax : (0451)641-1141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 하림  
HALIM CO.,LTD.